

불법 주정차 부추기는 '갓길 가변주차제'

하루 종일 인근 상인·주민 전용 주차장 전략 공공성 상실 광주 3개구 5곳 도입 운영...당국 단속도 손 나 민원 빚발

#1. 주민 박진수(45·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주말 밤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동구 웨딩의 거리(서석로)를 지나다 큰 불편을 겪었다. 동구정이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노상 무인주차장(양쪽 28면 규모)은 물론 주변 도로까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가득차면서 일대 도로가 큰 혼잡을 빚고 있었다.

왕복 4차로 도로 중 2개면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대기중인 택시마저 또 다른 1개 차선을 차지하는 바람에 박씨 등 차량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등 어쩔한 궤에운전을 반복해야 했다. 여기에 택시를 기다리는 취객까지 뒤섞이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박씨는 "동구정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해소한다며 노상 무인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는, 정작 나머지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지 못한 운전자들이 인근에 불법 주차를 일삼으면서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화 되고 있어서다.

11일 광주 5개 구청(동·서·남·북·광산구)에 따르면 현재 동구·서구·남구 등 3개구 총 5곳에서 도로를 활용한 가변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다. 각 구청들은 지난 2015년부터 상가 활성화와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적 불법주정차 구역에 가변주차제를 도입한 상태다. 동구는 문화전당로 일방통행로(문화전당역 교차로-전남대 오거리 230m 구간)와 의재로(흥리교-학동삼거리 700m 구간)에서 훌쩍제(흡수 일과 짝수일)에 따라 도로 주차 허용 방향을

바꾸는 방식)로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도로 한쪽면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웨딩의 거리 도로에 주차선을 그리고 무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풍암중앙로(베비에르-메디팜약국 200m 구간), 풍암1로(베비에르-신화약국 160m 구간), 풍암2로(메디팜약국-스와니코코 160m 구간)에서 24시간 도로 한쪽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구는 훌쩍제로 백운로(우미숯불갈비-다정화원 550m 구간), 제중로(사직세탁소-광주YWCA가정폭력상담소 330m)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주차공간이 하루종일 인근 상인이나 주민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략하면서 사실상 공공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선 가변주차공간을 인근 상인 전용

주차장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때문에 상가 등을 찾은 시민들은 주차허용지역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책은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강화하던가 가변주차제를 없애면 되지만,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들여 구축한 가변주차제를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다, 야간에는 인력이 부족해 이 동식 단속을 하지 못하고 단속 CC-TV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하면 과도한 단속이라는 민원이 빚발치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캠페인 등을 통해 가변주차제와 무인주차장을 홍보하고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도 병행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중앙로(베비에르~메디팜약국 구간) 인근 가변주차제 적용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등 궤에 운전을 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화정 2구역 1000억대 환경개선사업 제동

광주고법 '주민동의 못 얻어' 무효소송 주민들 손 들어줘

법원이 1000억원대 규모인 광주 서구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1일 정모씨 등 주민 10명이 L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적법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관련 사업처분은 모두 무효"라며 정씨 등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처분으로 주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사업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하도록 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120번지 일대에 거주해 온 정모씨 등 주민 30여명은 LH 등을 상대로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합소심 재판부는 "토지 등 소유자 71명 중 사업 동의자는 40명(56.3%), 세

입자 79세대(명) 중 동의자는 38세대(48.1%)로 각각 법정 동의율인 3분의 2 이상, 과반수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구정이 산정한 방법에 따라 동의율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87명 중 동의자는 50명(57.4%)로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및 도로 비율도 잘못 산정했다는 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선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동의 대상자 선정부터 동의를 산정까지 1심과 2심 판단이 달라 법적으로 다투할 여지가 남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서초중학교 인근 화정동 778번지 일원(2만5000㎡)을 정비하고 오는 2020년까지 440세대 규모의 공공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200억 원을 투입해 보상 절차를 진행해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대 가출 청소년 3명과 동거하며 성매매 시킨 20대 구속...성매수남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김모(2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자신이 거주하는 북구의 한 원룸에서 A(15)양 등 10대 여성 가출청소년 3명과 동거하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숙식 제공 대가를 요구하며 A양 등에게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날할 것을 수차례 강요했으며 실제 성매매도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수남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김씨와 A양의 성매매를 모의한 김씨의 친구를 추적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맨은 사람 확인 못해"...기계식 주차장 사망 무죄 선고

기계식 주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장치를 조작했다가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28)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맨으로 주차장을 살피면서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을 가능성까지 예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전씨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코인레일 400억 규모 가상화폐 유출사건 수사 착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에서 가상화폐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11일 "어제 코인레일을 방문해 서버 이미징(복제)으로 접속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화폐 유출이 실제로 해킹에 따른 것인지,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 발생

한 사고인지를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코인레일은 전날 해킹 공격으로 펀디엑스, 에스론, 엔퍼 등 자사 보유 가상화폐의 30% 정도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인레일은 24시간 거래량 기준 세계 90위권의 중소거래소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들어가겠다"...차단기 파손 만취 20대 지구대행

○...만취한 20대가 광주지방경찰청에 들어가겠다고 청사 입구에 있는 차량 출입차단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경찰서행.

○...11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고모(29)씨는 지난 7일 밤 11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지방경찰청 청문 입구에 설치된 차량 출입차단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켰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영업사원인 고씨는

사건 당일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광주지방경찰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고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청 앞까지 온 동료도 고씨를 말렸으나, 고씨가 말을 듣지않자 그대로 택시를 타고 떠났다"면서 "고씨를 조사했지만, 소주를 5병 까지 마신 것은 기억나는데 이후엔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